

# 태국한인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November 2025

창간 준비 2호

태국 돌보기, 게임의 룰



태국 돌보기  
레이그라통 축제: 물의 신에게 복을 기원하다

태국 부동산 인사이트  
게임의 룰

자녀 교육 & 진학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

교민과 사람들  
미트365·프레시키킨365 정기우 대표



LG Subscribe™

1<sup>st</sup> **ซบ**  ขอขอบคุณที่ซบกัน  
ANNIVERSARY



LG has Everything

Good  
Product

Good  
Price

Good  
Care

이제 가전도 구독하는 시대, LG전자 구독 Subscribe

구독 문의처  
02-057-5757

LINE

@Lgthailand  
08.00-18.00 u.

LG Subscribe





## 두 번째 걸음,

## 함께 만드는 길 위에서



제34대 재태국 한인회 회장 윤 두 섭

안녕하십니까, 태국 교민 여러분.

《태국한인소식》 창간준비 2호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준비호를 발행한 뒤, 많은 교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서로를 잇는 매체가 필요하다는 공감과 관심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2호는, 첫걸음의 설렘을 지나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태국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교민들의 이야기, 새로운 도전과 상생의 움직임,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식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잡지는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태국 교민 사회에는 다양한 세대와 이야기가 공존합니다. 오래전 이곳에 뿌리내린 선배 교민부터, 새롭게 자리 잡는 청년 세대까지—각자의 길 위에서 다르게 살아가지만, 서로의 존재가 곧 위로이자 용기가 됩니다. 《태국한인소식》은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올 2025년 12월 창간호부터는, 독자 참여 코너를 새롭게 기획할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이 직접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함께 잡지를 만들어가는 장을 마련하려 합니다. 아직은 준비의 단계이지만, 이 코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교민 사회가 한층 더 단단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준비호 역시 완성보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국한인소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잡지는 결국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만드는 사람, 읽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로를 기억해주는 사람—그 모두가 《태국한인소식》의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매 호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가까이 닿고, 우리의 이야기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잡지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잠시 머무는 쉼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인 윤 두 섭 올림

### Contents

03 발행인 인사말

05 한인회 소식

06 교민 소식통

07 태국 돋보기

08 슬기로운 교민생활 법률 상식

09 태국 부동산 인사이트

10 자녀 교육 & 진학

12 교민과 사람들

14 한인회 소개



#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법무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대마를 흡연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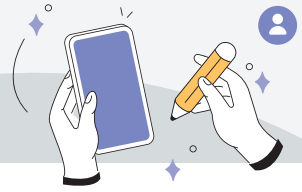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 한인회 동정



2025. 9. 26

## 김원장 전특파원 머니코칭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태국 방콕 자스민 시티호텔에서 부동산·주식 투자 전문가 김원장 전 특파원과 함께 ‘머니코칭: 우리는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약 100여 명의 교민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자 실패 사례와 성공 전략, 현지 투자 환경 등 실질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습니다.



2025.9.27

## 제13회 왕실공주컵 국제태권도대회 성황리에 마쳐

제13회 태국 왕실공주컵 국제태권도대회가 9월 27일 마히돈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윤두섭 재태국한인회 회장과 정성희 재태국한인사범연합회 회장이 공동대회장을 맡았으며, 박운섭 고문이 후원회장을 맡아 한인 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10여 개국 1,200 명의 선수와 3,000여 명의 관중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재외 동포청, 주태국 한국문화원, 아시아태권도연맹의 후원 아래 개최되었으며, 태권도를 통한 한태 문화교류와 한류 확산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5. 10. 4

## 2025 추석맞이 김치 축제 및 꿈나무 한마당

2025년 10월 4일 방콕 램브란트 호텔에서 열린 ‘2025 추석맞이 김치 축제 및 제12회 꿈나무 한마당’이 300여 명의 교민과 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박용민 대사와 윤두섭 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김인진 셰프의 김치 강연과 김치 만들기 체험, 미술·백일장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가위의 정을 나누었고, 재태국 한인 사회의 화합과 한국 문화 확산의 의미를 더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5. 10. 4 ~ 6

## 추석맞이 명절 송편 나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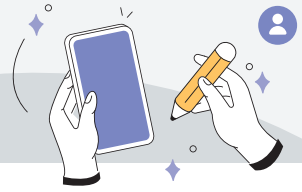
재태국한인회는 추석을 맞아 교민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방콕, 수쿰빗, 시라차, 촌부리 등 주요 지역에서 송편과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10월 4일 ‘꿈나무 한마당 & 김치축제’에서는 교민 및 학생 가정에 송편 150박스과 김치 150박스를 전달했고, 5일에는 수쿰빗 프라자 한인상가 타운과 함께 200박스를 나누며 상인들과 명절의 정을 나눴습니다. 6일에는 시라차, 촌부리, 파타야 지역 교민들에게 송편 100박스과 김치 150박스를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한인단체와 협력해 진행되어 교민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 제55기 기초 태국어 강좌 10/14일부터 시작

제55기 기초 태국어 강좌가 10월 14일부터 개강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태국 내 교민을 대상으로 하며,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태국어 회화와 표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의 장으로, 매회 많은 교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얻고 있습니다.



## 공지사항+알려드립니다



2025. 9. 18 ~ 19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순회영사, 푸켓 교민 위해 현장 민원 서비스 제공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푸켓 지역 교민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전자여권 접수, 공증, 재외국민등록, 거주확인서, 운전면허 확인서,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 국적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민들의 행정 편의를 도왔습니다. 대사관은 앞으로도 지역 교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영사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5. 9. 30

### 한-태 유망산업 진출전략 세미나 성료

한태상공회의소는 9월 30일 방콕 Hotel Nikko에서 ‘한-태 경제협력 유망산업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K소비재의 태국 내 트렌드를 중심으로 ▲수산식품 산업 전망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동향 ▲K-뷰티 진출 전략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산업별 협력 가능성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태 경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25. 10. 4

### 태국대표, Global K-Food Master 대상 수상

지난 6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한 ‘2025 한식요리 경연대회’의 태국 우승자 Virun Thanapattulthorn 씨가 10월 4일 한국에서 열린 ‘Global K-Food Master’ 국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구절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로 13개국 대표들 사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태국의 한식 사랑과 요리 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 10. 11

### 방콕한인토요학교 졸업식 및 종강식 개최

방콕한인토요학교는 10월 1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2025학년도 1학기 종강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얀마 대지진으로 연기되었던 졸업식은 학부모와 교사진,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으며, 김남혁 총영사와 김혜현 부회장이 각각 대사관과 한인회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윤두섭 회장의 축사는 김 부회장이 대독해 감동을 더했으며, 현재 학교에는 약 17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2025. 11. 8

### 라영/촌부리 기업인회, 제3회 자선 골프대회 개최

라영/촌부리 기업인회(회장 김영철)는 오는 11월 8일, 제3회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태국 내 불우 학생들과 6·25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그간 모인 기부금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며,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교민 기업인들이 결속을 다지고 이웃에게 웃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태국을 수놓는 빛의 향연 **레이끄라통 축제** 물의 신에게 복을 기원하다

설날과 추석의 우리의 양대 명절이라면 태국의 2대 명절은 ‘송크란’과 레이끄라통’이 있다. 태국 음력 12월 15일로 이날은 ‘응안레이끄라통’이라고 부르는 태국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명절로 간단히 ‘레이끄라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레이끄라통’은 태국에서 매해 열리는 축제, 강이나 호수에 연꽃 모양의 배를 띄워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이끄라통’은 물의 신에게 감사하는 전통에서 유래하였으며, 한국어로 ‘띄워보낸다’는 의미의 ‘레이’와 ‘떠있는 장식’을 뜻하는 ‘끄라통’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날을 맞아 태국인들은 ‘끄라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연꽃 모양의 바나나 잎으로 만든 작은 배에 불을 밝힌 초와 향·꽃·동전 등을 실어서 소원을 기도하며 강물이나 운하 또는 호수로 띄워 보낸다. 그리고 나서 이웃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낭만적인 축제를 즐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의 신을 기리고 지난 해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끄라통을 띄워 보낼 때 각자의 액운과 재난을 함께 띄워 보낸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또 각자 앞날의 소망을 말하거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때 촛불이 꺼지지 않고 멀리 떠 내려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밝은 보름달 빛 아래 고요하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따라 촛불을 깜박이며 부드럽게 까딱까딱 흔들거리며 떠내려가는 많은 끄라통을 보는 것은 미학적 즐거움이자 그야말로 장관의 극치다.

떠내려가는 끄라통은 보통 수명이 짧다. 출발지에서 멀리 떠내려가면 아이들은 물의 흐름을 따라 헤엄치며 따라가서 끄라통을 잡기도 한다. 만약 아름다운 끄라통이라면 손아귀에 넣고자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 평범한 끄라통이라면 그냥 무시하지만 끄라통안에 넣은 동전을 챙기는 것은 잊지 않는다.

이 축제는 지역마다 형태가 다르며, 치앙마이에서는 등불 풍등[‘이팽’이라고 부른다]을 만들어 하늘에 띄운다. 치앙마이의 이런 특이한 풍등 때문에 ‘이팽 란나 스카이 등불 축제’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한다. 이 축제 기간에 치앙마이 상



공은 안전을 위해 항공기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팽 띄우는 지역을 제한하기도 한다.

‘레이끄라통’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흔히 얘기하는 기원은 수코타이 시절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나 가족을 그리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보름달 밤에 바나나 잎으로 만든 작은 배에 촛불과 향에 불 붙여 강에 띄워 보내며 남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 것이 기원이라는 설이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연인들이 강가에 나가 함께 크라통을 띄우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지도 모르겠다.

지방 동네에서 그리고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이날 낮에 이웃들이 모여서 크라통 만드는 행사를 벌인다. 대개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강가에 가면 업자들이 만들어 파는 각양 각색의 크라통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사서 띄우기도 한다.

태국관광청은 매년 8~10곳에서 레이끄라통 축제를 주관하며 관광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매년 10억 бат 이상의 관광소득수입을 일으키고 있다. 방콕시의 짜오프라야강 주변, 수코타이, 딱, 치앙마이, 아유타야, 싸뭇송크란, 수판부리, 송크라, 핫야이 등이 유명하다.

금년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짜오프라야 강에 크라통을 띄워보낼까 한다. 이왕이면 태국 동전보다 한국 동전을 크라통에 담아 보내면 나의 바램이 한국까지 전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글쓴이: POH IT 대표 박동빈]





## 응급상황 뒤에도 침착하게 병원비 대처 가이드



### 외국인 병원비 분쟁,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태국에 거주하시거나 여행 중인 교민 여러분께서는 한 번쯤 ‘병원비 과다청구’나 ‘여권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는 정신이 없는 사이 치료가 진행되어, 퇴원 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실제 사례

정 모 씨는 방콕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채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지만, 퇴원 시 병원 측이 제시한 금액은 예상의 세 배가 넘는 80만 바트였습니다. 더구나 병원은 “지불 전까지 여권을 반환할 수 없다”며 귀국조차 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예기치 못한 청구서 앞에서 정 씨는 회복의 안도감보다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타국에서 도움을 청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현실은 더욱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현지 제도와 절차를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이런 상황이 쉽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 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병원이 보험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한 탓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결국 병원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 알아두시면 좋은 법률 포인트

태국 민법 제295조와 제396조는 응급상황에서 환자 동의 없이도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치료비는 반드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불필요한 치료나 과도한 금액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여권을 압류하거나 지불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감금 또는 인신 구속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병원에 영문 청구서 및 치료 내역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험사 또는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교민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 대응 요령

1. 입원 전, 치료 항목과 예상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 전 ‘비용 추정서(Estimate)’를 요청하십시오.
2.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병원 측에 보험사 승인 절차를 요청하고 Direct Billing(병원-보험사 간 직접 청구)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과다청구가 의심될 때에는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병원이 여권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신고 또는 주태한국대사관의 영사조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교민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태국의 일부 민간병원은 외국인 환자에게 현지인보다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전 반드시 보험 보장 범위와 병원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나 응급 상황 시에는 본인이 후송될 병원을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나 대사관의 긴급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현지 교민 단체나 지인에게 본인의 병원 위치를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치료비나 행정 절차 문제로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거주 교민의 경우, 평소 이용하는 병원과 보험사 간의 협약 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응급상황 시 훨씬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에서 병원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근거와 절차적 권리를 숙지하신 후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신다면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쓴이 : 장수길 한인회 총괄부회장]

## 게임의 룰



부동산 위브  
대표 이 은 철

### 스위스에서 배운 ‘집의 의미’

처제가 스위스인과 결혼해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함께 여러 차례 스위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요. 처제의 남편, 토비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에 관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는데, 흑백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토비 아버지와 사촌들이 함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토비는 마당에 직접 화덕을 만들어 피자를 구워주었고, 그 순간 저는 ‘이 집에는 가족의 이야기가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는 동시에 가족의 기억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돌 하나, 벽 한 줄에도 삶의 온기가 스며 있었지요.

### 나의 첫 집, 숫자로 시작된 인연

결혼 전, 저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며 책과 강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배웠습니다. 2006년, 스물일곱의 나이에 저는 ‘2005타경82156’이라는 사건번호로 표시된 경매 물건에 입찰했습니다. 경락 잔금 대출을 최대한 끌어내어 작은 빌라를 낙찰받았고, 예상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 입찰가를 정했습니다. 결과는 1등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입찰자들은 대부분 투자자였고, 저는 실수요자였습니다.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투자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은 저에게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그 집으로 이사했고, 그 작은 집은 자연스럽게 제 신혼집이 되었습니다.

토비는 아버지와 사촌들이 함께 지은 집을 손수 고쳐가며 살아왔고, 저는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집을 경매로 낙찰

받아 살았습니다.

그 두 장면이 제게는 뚜렷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토비가 자신의 집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날, 저는 ‘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작지만 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시간이 쌓인 공간이라는 것ですよ.

### 태국의 집에서 본 ‘다른 삶의 방식’

그렇다면 태국의 집들은 어떨까요? 방콕의 수쿰윗만 보더라도 그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한국이라면 이미 재개발되어 새로운 건물로 바뀌었을 법한 건물들이 이곳에서는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하며 사람들의 일상을 품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오래된 집을 허물기보다는 필요할 때 손을 보고,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낡은 벽과 흔들리는 창문 속에서도 그들은 만족을 찾고,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저는 ‘태국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낡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식 가치관, 즉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반영입니다.

반면 태국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만족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 룰을 이해하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가치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본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태국 부동산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태국의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식 방식만 적용하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낯선 나라의 집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요.

“게임의 룰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태국 부동산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여행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듯, 태국 부동산 역시 그들의 룰과 맥락을 알아야 비로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국 부동산이 아직 재미없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그들의 룰을 정확히 이해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



ISE 교감  
안 소 형

###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묻다

교육자로서 거의 15년 동안 일해 오는 동안 학부모 상담부터 대학 입시 지도까지, 저의 역할은 늘 부모님들께 자녀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화는 이런 질문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부모님들의 질문은 대부분 ‘대학 진학’에서 멈췄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떠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부모님을 만나기 때문이었지요.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교육’에 한정되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된 후, 저는 교육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다른 부모님들께 조언을 드리려는 글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교육 현장 속에서 일하며 이제는 엄마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두 세계를 오가며 느낀 생각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 학교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

제 딸은 앞으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대략 25,000시간에서 30,000시간 정도를 학교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저는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다하리라 믿어야 합니다. 교사와 교육자들이 미래의 시민을 길러내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 믿으니까요.

그렇다면 부모인 제 역할은 무엇일까요? 학교에 맡겨야 할 부분과 제가 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짧은 엄마 경험이지만, 제가 깨달은 건 부모의 역할은 학교

에서 배우는 걸 ‘집에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사회적·정서적 성장을 도와주고, 학교에서 배운 가치와 습관, 행동을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 학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집에서는 사랑과 안정,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아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각 연령에 맞는 성장 과정을 살펴보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와 트렌드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확신하는 어른으로서요.

### 우리가 진짜로 길러야 할 아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낼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손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저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가 회복력과 공감, 호기심,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딸아이의 PreK2 반 학부모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교사이자 행정가로서 누구보다 교육 과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날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명의 엄마로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로서의 제 역할은 모든 학업 성취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식을 쫓기보다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수많은 육아 정보에 휩쓸리기보다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 제가 더 이상 곁에 없더라도 —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교육자로서 수많은 부모님께 던졌던 질문이 이제는 제게 돌아옵니다.

“나는, 우리 아이의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문의\_ [megazine.thaihanin@gmail.com](mailto:megazine.thaihani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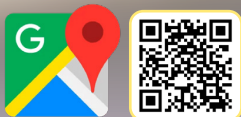
# 지니아 태국 IVF & 유전학

## 불임 치료 클리닉

GenPrime  
**genea**  
WORLD LEADING  
FERTILITY



### 문의하기



센트럴월드  
센트럴타워 10층

GenPrime  
**genea**  
WORLD LEADING  
FERTILITY

닥터 SASAWIMOL  
PREECHAPORNKUL  
의료원장

GenPrime  
**genea**  
WORLD LEADING  
FERTILITY

닥터 POKPONG  
PANSRIKAEW  
불임 전문의



## 태국에서 신뢰로 일구는 유통 혁신

### 미트365·프레시키킨365 정기우 대표가 꿈꾸는 '상생의 경영'

**Q**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태국에 언제 부터 계신 건가요? 현재 운영 중인 회사들을 소개해주세요.

정기우입니다. 1988년생, 올해 37살이고요. 2019년 1월부터 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촌부리의 제조업체에서 약 3년을 일하며 태국어를 배우고 현지에 적응했고, 그 다음 식품 수입유통 회사에서 2년 반을 근무했어요. 그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지금 미트365와 프레시키킨365의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미트365는 방콕 내 위치한 식당을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도매로 공급하는 회사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정형·가공해서 납품하고 있어요. 프레시키킨365는 같은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신선한 채소, 과일, 해산물, 주방용품 같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현재 태국에서 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한인 교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깨끗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고기 도매와 채소·주방용품을 함께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한국과 태국에서의 경험이 사업을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두 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지만, 사실 프레시키킨365는 미트365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거예요.

고기를 납품하던 고객분들이 채소, 과일, 주방용품 같은 다른 물품들도 필요로 했는데, 기존 공급처들이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비싼 데다가 신선도도 좋은 곳을 찾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태국어와 한국어 사이의 언어 장벽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프레시키킨365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2세가 아니라서 처음 태국에 왔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면서 배운 경험과 태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깊이 파고들어 해결 방법을 찾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국어를 배우고 근무 경험을



쌓으면서 태국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한국과 태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차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상생'입니다. 저 혼자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성장할 때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할 때 파트너들도 함께 번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뢰를 중요하게 봤는데, 태국에서는 인간관계와 융통성을 중시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합하려고 해요. 타협 없는 품질 기준은 지키되, 각 고객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방식으로요.

태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로서, 양국의 식문화가 함께 풍성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소통, 효율성 - 이 세 가지를 신뢰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자세입니다.

**Q** 주요 고객층은 어떻게 되세요? 한인 고객과 태국인 고객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다른 공급처와의 차별화 포인트는 뭔가요?

현재 한국 고객과 태국 고객이 반반 정도인데, 점점 태국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한국음식점뿐 아니라 일본음식, 태국음식 등 다양한 업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인 고객분들이 주였지만, 품질 좋은 고기와 신선한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평판이 입소문이 되면서 태국인 고객들도 찾아주시더라고요. 차별화 포인트를 굳이 말하자면, 좋은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관계와 상생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거 아니라, 고객분들의 사업이 잘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필요할 때 맞춤형으로 대응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신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Q 기존 한인 커뮤니티와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동포 사업가들과의 협력이나 네트워킹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인회 이사로서 봉사하고 있고, OKTA(한국해외진출기업협회) 방콕지회의 차세대 대표도 맡고 있어요. 방콕의 열정 있는 젊은 분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BNI(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회원으로서 태국 내 다양한 사업가들과도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태국 현지 사업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나누고, 언젠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Q 새로 출범한 재태국한인회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윤두섭 회장님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인회가 추구하는 “투명한 한인회, 소통하

는 한인회, 함께하는 한인회” 그리고 “INNOVATION FOR COEXISTENCE”라는 비전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투명성과 소통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인회가 되는 데 제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업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반 위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의 기회들이 생기고, 젊은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인회가 단순한 행사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Q 미트365와 프레시키친365의 구체적인 위치, 운영시간, 주요 서비스를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한인 동포들에게 특별한 할인이나 혜택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회사 이름처럼 365일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선한 고기, 채소, 과일, 주방용품 등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약속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Q 사업 확장 계획이나 새로운 도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후배 젊은 교민들에게 조언 한 말씀? 마지막으로 재태국한인회 소식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태국은 정말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후배 젊은 교민들에게는 같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만나고 대화하세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고, 해결할 방법도 함께 찾아질 겁니다. 태국에서의 인간관계와 신뢰가 모든 기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인회 최신 뉴스 속보 QR Code

이 QR코드는 언제 스캔을 하셔든 한인회에서 교민들에게 스캔 당시 최신 뉴스 속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창간호를 스캔하셔도 같은 뉴스속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세요.



### 한인회 멤버십 가입하기

- 1 한인회 홈페이지 접속 → [www.thaikorean.kr](http://www.thaikorean.kr)
- 2 맴버쉽 가입하기
- 3 일반회원 가입
- 4 정회원 전환하기
  - 일반회원 로그인 후 개인회원 전환하기
  - 일반회원 로그인 후 법인회원 전화하기

### 한인회 멤버십 혜택

- 1 태국 무료 기본 건강검진  
(법인회원 가족 3인까지)
- 2 태국 주요 병원 할인 혜택  
(범룽랏, 방콕, 사미티벳, 신포 등)
- 3 한국 서울 강남, 건강검진 40만원 혜택가  
(회원+가족가)
- 4 한국 서울 강북, 건강검진 40만원 혜택가  
(회원가)
- 5 태국 현대차 구입 할인 혜택
- 6 태국 자동차 보험 최대 8% 할인
- 7 재태국한인회 행사 우선 초대권
- 8 일반 법률·경제 자문 서비스
- 9 태국 차량정비 할인혜택

### 재난정보 알림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

재태국 한인회는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실시간 공지 및 안내를 위한 공식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피 및 대응 안내, 대사관 공식 재난 정보, 사건·사고 대처 매뉴얼,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기본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1. QR 코드로 접속합니다.
2. '채널 추가'를 클릭합니다.



※ 여러분의 참여는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5 재태국 한인회 All Rights Reserved.

발행처 사단법인 재태국한인회

발행일 2025년 10월 05일

발행인 재태국한인회장(윤두섭)

기획제작 재태국한인회

주 소 23/16 Sorachai Building 12 Fl., 23 Soi Sukhumvit 63, Klong Tan Nue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이메일 [thaihanin@gmail.com](mailto:thaihanin@gmail.com)

홈페이지 <https://thaikorean.kr>

편집 및 인쇄 스토리오브시스템([khc@storysystem.kr](mailto:khc@storysystem.kr))

Samsung  
Life Insurance

# 삼성생명

보험상품을 활용한 절세 플랜!  
최대 10만 바트 까지 소득공제 가능



첫 5년간  
매년 4%<sup>1</sup>  
Cashback

6년차부터  
매년 6%<sup>2</sup>  
Cashback

계약  
만기시  
최대 626%  
환급

납입기간은  
짧게,  
단 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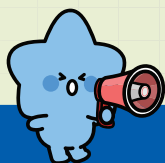


## Super Saving 10/6

단기저축으로 넉넉한 보장과 환급혜택까지!

- 최대 610% 사망보장
- 건강검진 없이 간편하게 가입
- 연간 최대 100,000 바트까지 소득공제혜택 (\* 태국 국세청 규정에 따름)

<sup>1</sup> 보험년도 1 - 5년차: 매년 가입금액의 4% 환급    <sup>2</sup> 보험년도 6 - 9년차: 매년 가입금액의 6% 환급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재태 한인회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 +66-2-100-4749  
(월 - 금: 8:30 ~ 17:30)



이메일 : thaihanin@gmail.com



웹사이트 : <https://thaikorean.kr/>

# 한국차의 자부심을 태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태국 교민들을 위한 현대자동차의 특별 연말 프로모션  
오직 3개월 동안의 큰 혜택,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세부 내용은 아래 한국 교민 전담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할인 차종]

스타리아, 싼타페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5, 팰리세이드, 스타게이저, 크레타, 아이오닉 6

## [구매 문의]

한국 교민 전담 콜센터 : (+66) 099 346 6229

이메일 : ycchoi@hyundai.com, Jeonghwan.lee@hyundai-thailand.com

\* 본 특별 혜택은 방콕 직영점 (H-Space, H-Studio, IONIQ Lab) 에서만 진행되는 한정 캠페인입니다

